

“조사관 타파하니 청풍이 태고에서 불더라”

8 태고사·사나사, 아득하면 오늘

내려 놓아라 망상을 하지 마라 이것이 여래의 대원각이라 영원토록 잠시 문호를 나왔으나 잠시 떨어지면 지금의 길이로다 이 암자는 본래 태고암이 아닌 것을 오늘에 이르러 태고라 했네. -태고암가(太古庵歌) 중

태고사(太古寺)로 올라가는 아침나절, 부지런한 등산객들이 적지 않습니다. 북한산성 입구에서 대서문과 중성문을 지나 중흥사까지 오르는 길은 완만합니다. 왼쪽으로 의젓한 아저씨처럼 버티고 있는 노적봉은 태고 이래의 시간을 응축한 거대한 침묵의 덩어리인 듯합니다.

태고사를 눈앞에 두고 먼저 중흥사(重興寺)터를 둘러봅니다. 이런 계곡에 이런 터가 있을 줄이야. 중흥사터는 의외로 넓고 반듯합니다. 허물어진 석축이 다시 제 모습을 찾을 날이 언제일지 알 수 없지만 그 엄원만은 임시로 세운 법당에 겨울했살로 들어차 있습니다.

원증국사(圓證國師) 태고(太古) 보우(普惠 1301~1383) 선사가 중흥사에 발을 들인 것은 그의 나이 마흔이 넘어선 때입니다. 고려말의 문장가 이색(李穡)이 우왕11년(1384) 찬한 보우 선사의 비문에는 '신사년 봄에 한양 삼각산 중흥사에 주석하게 되었는데, 동봉(東峯)에 자그마한 암자를 짓고서 편액을 태고암이라 하고 그곳에서 영가(永嘉) 스님의 증도가 본받아 태고암가 한 편을 지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의 신사년은 1341년으로 고려 충혜왕 2년입니다.

보우 선사가 '태고암가'를 지은 태고사는 선사의 오도처인 셈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보우 선사가 석옥청공(石屋淸峯) 선사에게 '태고암가'를 바쳤는데 이를 본 청공 선사는 크게 감탄하여 "노승이 이제 다리를 뻗고 잠잘 수 있게 되었다"며 법을 전했습니다. 그 법이란 다름이 아니라 달마 이래로 혜능을 거쳐 마조도일과 백장회해의 산맥을 넘고 황벽회운과 인제회현의 들판을 달려 오조법연과 원오극근의 강을 건너고 설암조흥과 급양승신의 길을 따라 석옥청공에 이어진 선종의 정맥입니다. 청공 선사의 법맥을 받은 보우 선사는 부처님으로부터 58대손이요 인제로부터 19세손이 되니 이전에 동으로 전해 온 정법의 빛에 또 하나의 섬광이 더해진 것입니다.

태고사 마당은 조용합니다. 귀퉁이에서 새끼를 이끌고 어슬렁거리던 견공(犬公)도 카메라를 메고 나타난 객을 경계하지 않습니다. 매일 보는 사람인양 한 번 쏘옥 쳐다보고는 제 갈 길을 가버리는 누렁이 녀석들의 뒷배가 웬지 사람의 그것처럼 느껴집니다.



태고사 원증국사탑.

대웅보전에 3배를 올리고 나와 곧바로 원증국사탑(비보물 제611호)을 만납니다. 귀갑문이 본래 없었는지 닳았는지 등이 맨질한 거북은 좁은 보호각 안에 갇혀 있기가 좀 따분한지 머리를 문 밖으로 꼭 내밀려고 힘을 준 듯합니다. 그래봤자 별로 볼 것도 없는 세상인데 말입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 원증국사탑(보물 제749호)을 배알하러 오르는 길에 조용히 좌정하고 있는 석종형 부도 3기를 만납니다. 주인을 알 수 없는 부도들이 눈길을 끌어당깁니다. 가까이 가 보니 하나는 몸 전체에 연꽃잎을 새겨 넣어 석조 자체가 한 송이 연꽃으로 보이게 했는데 아이디어가 참신합니다. 또 하나는 종을 아주 사실적으로 표현했고 마지막 하나는 문양도 없고 조형미도 떨어지는데 그런데로 그 자리가 어울립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 앞에는 오늘날 태고종의 기초를 놓은 대륜(大倫) 스님의 부도가 서 있습니다. 따로 탑비는 없고 앞에 놓인 상석 앞면에 '태고종중흥주법운대륜대종사'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높이가 4미터로 부도치고는 키가 큰 편인 원증국사탑은 삼각산 계곡을 내려흐르고 치 흐르는 바람 속에서 서 있습니다. 태고로부터 흘러온 시간을 멈추어 놓고 '내려 놓아라 망상을 하지 말라'는 간절한 가르침을 바람결에 실어 하염없이 속세로 흘러보내고 있



사나사 보우 선사 사리석종.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가평 설곡리의 석종형 부도. 보우 선사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는 것입니다. 어제도 속세고 오늘도 속세인 사람들의 세상에 언젠가 태고 속의 오늘을 깨우치는 날을 기약 하려는 선사의 자비가 부도발을 가득 채우고 있으니 말입니다. '굳은 조사관을 타파하고 나니, 청풍이 태고에서 불더라'는 절정은 바로 보우 선사 오도송의 결구입니다.

앞 시대에 비해 다소 균형미가 떨어지고 조각 수법이 투박해지긴 했지만 웅장한 키로 서서 삼각산 아래를 굽어보는 보우 선사의 부도는 우리에게 담묵한 청풍의 맛을 보여주는 중요한 아이콘입니다. 다만, 우리들이 그 깊고 묘한 가르침을, 그 넓고 두터운 덕화를 본받지 아니하고 이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에 얽히고설켜어 가리키는 말을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임금의 지극한 존경을 받았지만 그 때문에 신돈(辛旽)으로부터 상당한 질시와 모함을 받았던 보우 선사. 번번이 국사의 자리를 사양하고 도망하면서 선종을 홀트리지 않았던 보우 선사는 제자들에게 "내일 유시에 떠날 것"임을 알리고 국사의 직인을 봉인해 했습니다. 이윽고 시간이 다가오자 선사는 조용히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단정히 앉아 "한 덩이 붉은 해가 서쪽 봉우리로 진다"는 임종계를 결구하고 원적에 듭니다. 한 수행자가 이승의 옷을 벗는 장면이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집니다. 큰 스승의 죽음을 온 몸으로 보여주는 법문입니다.

원증국사탑비문에 의하면 보우 선사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리를 남겼는데 그 중 100과를 임금에게 올리니 임금이 더욱 존경하는 마음을 일으켜 시호를 내리고 탑의 조성을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석종을 만들어 사리를 진장(鎮藏)한 것이 무려 세 곳이나 가은 회양사와 양근의 사나사와 이 절 부도 옆에 서 있는 것이 그것이다. 석탑으로 만들어 조장(厝藏)한 곳은 미원현의 소설암이다"라는 안내도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부도와 탑비가 문경 봉암사와 양평 사나사, 가평 소설암 등 세 곳에 더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역주 교감 고려고승비문>에서 지관 스님은 보우 선사의 사리를 모신 탑비는 모두 다섯 곳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관 스님은 명주군 청송사를 더해 태고사 사나사 봉암사 소설암을 보우 선사의 탑비가 있는 곳이라 합니다.

그러나 지금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봉암사의 석종형 부도는 보우 선사의 것이라고 하기에 양식이 지나치게 후대로 보여 지고 명주(강릉) 청송사는 부도밭의 흔적조차 없으며 소설암은 절터는 추측

임을 높이고 그로인해 지역의 권위가 승격됨을 칭송하는 내용들을 볼 수 있습니다.

보우 선사가 임종계를 읊고 단정히 입적했다는 소설암을 찾아갑니다. 옛날에는 양평에 속한 땅이었으나 지금은 가평군 설악면 설곡리입니다. 동네 가게에서 노인에게 물었더니 "아, 저기 절안집 말이구먼. 저기 길 건너 마을 회관 뒤로 길이 있어. 한 때는 학생 들이나 스님들이 자주 드나들더니 요즘은 뜸해"라며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소설암터로 추정되는 자리는 허물어져 가는 슬레이트 집 한 채와 소가 들어선 우사가 지고 있습니다. 집 근처나 밭에는 묵은 기와 조각들이 수도룩합니다. 자세히 보니 요즘 것이 아니고 제법 두터운 와편인데 재래식으로 구운 것들입니다. 우사 뒤 산비탈 아래 드리 잣나무 아래 사람 앉은키만한 석종 하나가 있습니다. 두터운 낙엽을 밟으며 찾았던 석종은 커다란 계란을 세워둔 것 같은 모양새입니다. 동행한 이 승현 시조시인이 갑자기 석종을 끌어안고 귀를 댄 채 한참동안 숨을 죽입니다. 무슨 소리를 들으려는 것일

원증국사탑 4m 높이로 세상에 '무언의 설법'

석옥청공 '태고암가' 읽고 "이제 다리 뻗고 잠 잘 수 있다" 인가

사리탑 5곳 건립 기록... 현재는 두 곳만 전해

되지만 남아 있는 유물이라고 자그마한 석종형 부도 하나 뿐입니다.

사나사에 모셔진 보우 선사의 석종형 부도는 마른 이끼가 몸돌 전체를 뒤덮고 있습니다. 여름철 비라도 맞으면 싱싱하게 살아날 것 같은 이끼가 바짝 마른 속으로 겨울을 견디고 있습니다. 부도 곁에는 자그마한 탑비가 보호각 속에서 햇볕을 쬐고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주석처가 아니었던 사나사에 석종과 탑비가 세워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보우 선사는 바로 양평 사람입니다. 정도전이 찬한 '양근(양평의 옛 지명) 사나사 원증국사 사리석종비문'에는 '원증국사는 영근군 대원리(보우 선사의 외가 마을, 오늘의 대흥리로 추정)에서 탄생하였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보우 선사가 소설암에서 입적하자 양근군에 살고 있는 노인들이 군수에게 청하여 석종과 비를 만들고 사리 10과를 넣어 사나사에 봉안했다는 내용도 전하고 있습니다.

보우 선사의 드높은 범행은 태어난 곳의 영광으로 회향되기도 했습니다. 보우 선사가 입적한 뒤 공민왕은 양근 땅이 보우 선사의 출생지란 점을 들어, 의화현에서 양근군으로 승격 시키고 임종처인 소설암이 있던 미원장(迷原莊)도 현으로 승격시켰던 것입니다. 정도전이 찬한 비문에서도 보우 선사가 이 지역 사람

가오?

"그저 내가 20대 때 가서 땅굴을 헤치고 캐낸 것입니다. 침연 묻혀 있었는데 꼭지만 조금 보이는 것을 파낸 것입니다."

우사의 주인 박돌신(58씨가 "3년 전까지만 해도 스님들이 찾아와 빈집에 살게 해 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합니다. 교수님을 따라 온 학생들이 옥수수 밭을 짓고간 이야기도 들어 줍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저 여기서 소설암 터일 것이라는 추측을 기와조각들과 주인 모를 작은 석종 하나가 뒷받침 해 주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보우 선사의 그림자를 따라 다니던 기행의 마지막은 기울어 가는 겨울 햇살처럼 쓸쓸 하거나 합니다.

임연태 기자 mian1@hanmail.net

■ 기본참고자료

<역대고승비문>서리즈, 이지관, 가산불교문화연구원. <부도> 정영호, 대원사. <신라와 고려시대 석조부도> 엄기표, 학연문화사. <전통사찰총서> 사찰문화연구원. <답사여행의 길잡이> 한국문화유산답사회, 둘째개. <동사열전> 김윤세 역, 광재원. <잊혀진 가람탐험> 정지현, 역시아문. 등.



불교서적총판 (주)은주사

불교서적총판 은주사를 이용해주시는 여러분께 지면을 통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 드립니다.

그동안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사업장을 이전하여 영업한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이는 오로지 창업이래 저희를 아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스님들과 불자님들 덕분이며, 또한 출판업계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도움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며 진심으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은주사는 앞으로도 불교홍포에 일익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직원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정진하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없는 성원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주식회사 은주사 대표 임희근



인터넷 불교서점
붓다북 02)953-7181

www.buddhabook.co.kr

주 소 |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5가 120번지
동일 하이빌 지하 1층

전화번호 | 02)3672-7181~4

팩스번호 | 02)3672-7186, 7188

